

전남농협, 영농철 인력난 해소 상반기 19만명 일손 지원

고흥서 50여명 참여 마늘 수확
영농철 농촌인력 적기 지원 총력

농협전남본부(본부장 이광일)는 21일 고흥군 풍양면에서 전남농협 전체 법인과 4개 시군지부(고흥, 보성, 장흥, 순천), 순천권역보존센터, 풍양농협 임직원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남농협 마늘수확 일손돕기'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남농협은 영농인력 부족과 인건비 부담으로 이종고를 겪고 있는 농업인을 위해 지난 4월 영농지원발대식을 시작으로 마늘, 양파 등 노지 채소 수확뿐만 아니라 사과, 적과, 매실 수확 등 일손돕기와 함께 농촌인력증계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일손이 많이 필요한 상반기 중에 연간 추진 목표 26만명의 70% 이상인 19만명의 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함께 40개 농협 농촌인력증계센터를 적극 활용해 총 8만5,000명의 인력을 증계한다. 내국인을 모집해 농가와 연결하는 농촌형 인력증계센터는 총 25개 농협에서 6만 3,000명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협이 직접 고용해 농가에 지원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총 15개 농협에서 2만 2,000명을 지원한다.

농촌인력증계센터가 없는 시군지부와 농축협도 자체적인 인력지원 시스템을 가동, 총 9만명



농협전남본부는 21일 고흥군 풍양면에서 전남농협 전체 법인과 4개 시군지부(고흥, 보성, 장흥, 순천), 순천권역보존센터, 풍양농협 임직원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남농협 마늘수확 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의 인력을 증계해 부족한 일손을 돕는데 힘을 보탠다.

이외에도 농협 임직원,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협약 기업 및 대학,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총 1만명이 일손돕기 봉사활동에 동참한다.

농협전남본부와 사단법인 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가 중심이 돼 전남농협 전체 법인과 농축협 등 250여개 사무소와 함께 일손이 필요한 지역

을 발굴해 일손돕기를 실시한다. 이웃 시군 간 품앗이 일손돕기를 진행하고, 전남농협노조는 조합원들과 함께하는 일손돕기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 농산물을 활용하고 있는 보해양조와 농업농촌 현장학습 업무협약을 체결한 4개 대학(광주대, 초당대, 정안대, 순천제일대)은 일손돕기를 10회 이상 실시하기로 했으며 농협은행 대학생봉사단 N돌핀은 일손이 필요한 소규모

농가를 찾아 일손을 보탬 예정이다.

법무부와는 사회봉사대상자와 함께하는 농촌 일손돕기를 확대하는 한편 '보라미봉사단 영농인력 활용 시범사업'을 활용해 영농인력 공급을 늘려 나가기로 했다. 보라미 봉사단은 수확자, 교도관 및 교정위원들로 구성돼 있으며, 농협은 일손이 필요한 지역 및 농가에 이들의 봉사활동을 연결해 무료로 인력을 지원한다. 더불어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개인 및 단체는 일손이 부족한

농가와 신속히 연결할 계획이다.

이광일 본부장은 "영농철에 일손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농촌일손돕기에 동참해 구슬땀을 흘리는 농협 임직원, 협약기업 근로자 및 대학생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전남농협은 농촌인력증계센터 등을 적극 활용해 영농인력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자발적인 농촌 봉사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연수 기자

지역인재 양성 메카 '광주드림패스' 출범

중진공-지역 11개 대학 업무협약
수요맞춤 지역인재양성 시범사업

청년 인재가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시범사업이 광주에서 본격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최근 호남연수원에서 지역 11개 대학과 함께 '광주드림패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0월 중기부와 교육부가 체결한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기반 지역주력산업 육성 협약'의 일환으로 지역 대학과 기업,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인재를

양성하고 정착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참여 대학은 △광주대 △광주보건대 △광주여대 △남부대 △동강대 △서영대 △송원대 △전남대 △조선이공대 △한국폴리텍 광주캠퍼스 △호남대 등 총 11개교다.

광주드림패스는 지역 산업 수요 기반 교육과정 공동 기획·운영, 외국인 유학생의 중소기업 취업 지원 및 지역 정주 기반 마련, 청년 창업 프로그램 공동 운영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특히 중진공은 광주 RISE센터 및 RISE사업 참여대학과 연계, 지역 청년들에게 청년창업사관학교 프로그램·실습 중심 기술교육·외국인

유학생 전용 취업 플랫폼 'K-Work 플랫폼'을 적극 연계 지원할 방침이다. 시범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타 지역으로의 확산도 계획중이다.

업무협약식 이후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광주 RISE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대학별 정책 건의와 지역상생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한교 중진공인력성장이사사는 "이번 광주드림패스를 통해 지역과 대학, 기관이 함께 청년 인재의 교육·창업·정착을 연결하고 지역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청년 이 지역에 머물고 기업이 성장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승현 기자

전남신보, 국가 ESG경영 최우수 기관 선정

마스터플랜·사회적 가치 창출
고령 친화적 금융서비스 제공

전남신보보존재단은 지난 20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9회 국가지속가능 ESG 컨퍼런스'에서 ESG경영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국가지속가능 ESG 컨퍼런스'는 지속가능한 ESG경영의 중요성을 알리고, 이를 정착시켜 글로벌시장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매년 ESG경영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기관을 선정해 정부 및 부문별로 포상한다.

전남신보는 전남도민의 금융접근성 제고에

기여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한 공로를 인정받아 ESG경영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전남신보는 2024년 기관 최초로 'ESG 경영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청정전남 구현 △상생·동행 강화 △투명경영 확립이라는 3대 전략 목표를 바탕으로 경영 전반에 ESG 요소를 체계적으로 반영했다.

특히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생활밀착형 금융지원 일환으로 원거리 및 고령화 지역을 찾아가는 금융버스 '가드림'을 운영하며 보증, 대출, 재무 상담, 경영지도, 보건 의료까지 금융서비스부터 비금융 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 사업은 고객 편의성 제고와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에 기여하며 '2024년 도민

평가단 최우수 시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한 불법 브로커, 보이스코핑 등 금융 범죄에 대한 피해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법률구조공단 등 전문기관과 협업체 불공정거래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시행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 밖에도 도내 민·관·학 협력을 통해 무료로 영세 점포 환경 개선과 홍보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있으며, 투명한 정보 공개 및 청렴 거버넌스 강화 노력을 통해 '전라남도 공직유관단체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전남신보보존재단 이강근 이사장은 "이번 ESG 우수기업 표창은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지속가능한 경영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한 결실"이라며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관으로 지속 성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연수 기자

전남TP, 광양만권 철강·알루미늄 기업 지원

‘산업위기대응 지원사업’ 모집

(재)전남테크노파크는 광양만권(광양·순천) 소재 철강·알루미늄 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2025년 산업위기대응 기업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 등 급변하는 세계 경제 및 통상 환경 속 광양만권 주요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남도, 광양시, 순천시의 지

원을 받아 전남테크노파크가 주관한다.

지원 대상은 광양시와 순천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 한국표준산업분류 C24(1차 금속 제조업), C25(금속 가공제품 제조업)에 해당하는 곳이다. 특히 미국 통상 정책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기업의 경우 피해 규모가 큰 기업부터 우선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 내용은 △공정개선 △시제품 제작 △경영 컨설팅 등이며 기업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단, 총 사업비의 10%는 기업이 자부

담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전남테크노파크 기업지원플랫폼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전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 게시된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익현 전남테크노파크 원장은 "광양국가산업단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알루미늄 산업은 미중 무역분쟁, 국제 통상 질서 변화, 탄소중립 요구, 생산에너지 비용 상승 등 다양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전남테크노파크는 지역 중소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갖추 수 있도록 정책·기술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승현 기자



광주은행이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2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광주·전남·수도권 지역 전 영업점에서 무더위쉼터를 운영한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 전 영업점서 '무더위쉼터' 운영

폭염 일수 증가에 한 달 앞당겨
9월 30일까지 누구나 이용 가능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광주·전남·수도권 지역 전 영업점에서 '무더위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폭염일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은행은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매년 무더위쉼터를 꾸준히 운영해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예년보다 폭염이 앞당겨 시작되는

추세를 반영해 운영 시점을 기존보다 한 달 가량 앞당겨 시행하고 있다.

광주은행 무더위쉼터는 은행 영업시간(오전 9시~오후 4시) 중 누구나 자유롭게 방문해 더위를 식히고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시원한 냉방 시설과 함께 무더위를 식혀줄 시원한 부채도 제공해 시민들의 편안한 여름나기를 도울 예정이다.

광주은행 박성숙 영업기획부장은 "폭염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며 "지역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무더위쉼터 운영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연수 기자

DH 오토아이 '차세대 AI 어라운드 뷰' 특허 등록

글로벌 완성차기업 공급 추진

DH오토웨어는 자회사 DH오토아이가 AI 기반 차세대 어라운드 뷰시스템(AVM 시스템) 특허 등록을 마쳤다고 21일 밝혔다.

AVM 시스템은 AI 기술이 적용된 차량 측면 충돌 경고시스템이다. 차량 및 보행자 등 도로 내 충돌 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측 경고해 교통사고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특허등록에 따라 DH오토아이는 글로벌 자율주행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 공급을 추진한다. 최근 자율주행 기술의 안전성 향상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진 만큼 전방 시장으로부터 높은 관심

이 예상된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DH오토아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자율주행기술개발 혁신사업에서 다수의 자동차 전장 기업들과 공동으로 국책과제에 참여해, 차세대 자율주행 시스템 기술 개발 및 성능 검증·구현을 진행중이다.

오토아이 관계자는 "이번 특허등록을 통해 차세대 자율주행 안전성 향상 기술에 대한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며 "향후에도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해 글로벌 자율주행 밸류체인 핵심 기업으로 도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홍승현 기자